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8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4. 다 나와 찬송 드리세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영적인 성숙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날마다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뒤쳐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함 속에서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종이신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창조해주시십시오.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항상 기다리시고, 온유하게 다독여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집터 울밀을 돌아가며 잡풀을 뽑는 이들의 심정으로 우리 마음과 삶터를 정성껏 가꾸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18 시편67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김지호 선생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06.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16:25-26 ..... 인도자

..... II. 계2:18-29 ..... 유희경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나무 심는 사람 ..... 염혜영 전도사

..... II. 샛별을 품에 안고 .....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259. 빛의 사자들이여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힘겨워도 믿음의 길을 따라  
 걸으면 비틀거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셋별로  
 떠오르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서는 끈질김으  
 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힘겨워도 얼굴에 기쁜 미소  
 가득 담고,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  
 다.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평화와 생명의 새 세  
 상을 열기 위해 땀흘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강좌(44)	에베소서 강해(12)
기도 : 권혁순 집사	기도 : 임정자 권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혜인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표명화 집사

<b>7월</b>	영접위원	방문성	김인걸	박석희	송양진	이증자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이인웅	김준호	곽혜자	배상순	박혜경

##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어느 수도자가 뢰뻤 교부에게 여쭙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뢰뻤 교부가 대답하였다. “원한은 네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둘째는 시선으로, 셋째는 혀로 나타나면, 넷째는 악을 악으로 갚은 복수로 나타나지요. 당신이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악의가 눈빛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나, 설혹 눈빛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악의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말로 드러냈다면, 재빨리 하던 말을 그쳐 실제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감정이 충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있게 마련인데, 마음을 상하게 한 장본인은 자기가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깊어지면 점차적으로 증오와 원한으로 변하며, 마침내는 부부간 또는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가 파괴되기도 하며, 종족과 민족간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뢰뻤 교부는,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것에서부터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네 가지 형태로 정확히 구분하였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한 생각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악한 눈빛이라든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사막 교부들은 누군가에게 대해 원한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아예 자기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우리들은 어떤가?

## 가장 위대한 사랑

뢰뻤 교부의 말: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누군가에서서 악의적인 말을 듣고 괴로워하다 보면 똑같이 악

의적인 말로 대꾸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기 위해 자신과 싸운다면, 혹은 누군가가 자기를 푸대접해도 양갓음하지 않고 참는다면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악의가 섞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과연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인가? 꼭 집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인내하라고 권하는 쾨펜 교부의 조언에는, 벗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상통하는 지고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죽는 것과 목숨을 바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순교한다든가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죽음의 기회는 흔하지 않다. 사막 교부들은 영적인 동시에 실제적으로 부단히 또 최대한으로 복음을 실천하기도 결심한 분들이다. 그들은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상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일 조금씩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였다. 이기심을 조금씩 죽임으로써 사랑을 확대시키면, 결국에는 악한 성향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쾨펜 교부의 해석을 보고 곤혹스러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한 애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도끼 자루

어느 수도자가 아킬레오(Achille) 교부에게 물었다. “마귀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교부는 대답했다. “우리 의지를 통해서지요.”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리비아의 나무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감히 조그만 쇠토막이 키도 크고 힘도 센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에게 우리 몸의 일부인 자루를 내주지 않으면 그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들의 가지를 잘라 도끼의 자루를 만들어 나무들을 쓰러뜨렸다. 나무는 영혼이고, 도끼의 쇠부분은 악마이며, 자루는 인간의 의지이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우리의 악한 의지이다.

—뤼시앵 레노, <<내 연인은 광야에서 산다오>> 중에서

## ■ 마/음/으/로/읽/는/글

### 求 道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이 줄어들면서  
그는 차츰 자신을 줄여갔다.

꽃이 떨어진 후의 꽃나무처럼  
침묵으로 몸을 줄였다.

하나의 빈 그릇으로  
세상을 흘러갔다.  
빈 등잔에는  
하늘의 기름만 고였다.

하늘에 달이 가듯  
세상에 선연히 떠서  
그는 홀로 걸어갔다.  
(이성선)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중수 이순정 안종일 정현주 구명자 박규석 박경선  
 김근중 정옥영 백묘현 윤주원 최윤선 김윤수 박옥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호 김지윤 김순복 전영웅 박홍엽 장영숙 한인철  
 조윤숙 신윤정 임고운 최인환 김재흥 최희영

###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오현정 조항범 표명화 문금석 정두리 전영규 김경수  
 김 극 송의섭 이은자 김종문 지명주 박범희 박미영

###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이정은 한혜자 이인섭 최인환 김지호 김남홍 김현진  
 박창운 허정윤 무명1

생일감사헌금: 이순정 박홍엽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최 희 영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문 인 옥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안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흥 숙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연합속회** : 7월 15일(금) 오전 11시에 모이고 속회 방학합니다.  
예배인도 - 예루살렘속    식사준비 - 고린도속
3. **목요성경공부** : 목요 성경 공부반은 14일까지 모이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4.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2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 **동호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귀한 사귄과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6. **성경학교** :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아산에 있는 감밭교회에서 열립니다.
7. **신앙실천** :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습니다. 덩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십시오. 조금 덩게 지내되, 마음은 시원해지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속

\* 헌화 : 한상의 장로 (생일감사)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